

[오피니언]

태마칼럼

국제&사회

금융&BIZ

문화&미술

생활&여행



오수상

“

톨레삽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 소중한 환경 자원을 얼마나 훼손해 왔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Angkor Wat) 유적지 근처에는 동양 최대의 단수호인 톨레삽(Tole Sap) 호수가 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인가 하면, 물이 많아지는 우기에는 그 면적이 캄보디아 전 국토의 10%에 달하여, 우리 광주·전남 지역 전체 면적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톨레삽 호수의 물은 메콩강 하류와 만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데 바대로 흘러들어가는 입구가 상대적으로 좁다. 따라서 우기가 시작되어 메콩강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미처 바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톨레삽 호수로 대거 역류하게 된다.

톨레삽 호수의 면적을 불과 며칠 사이에 2배로 불어나게 하며 엄청난 규모로 역류하는 강물에는 무수한 물고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물고기들이 우기가 지속되는 4~5개월 동안 톨레삽 호수에서 산란을 하고, 톨레삽 호수 인근 열대 우림의 부산물들이 치어(鯉魚)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는 깊이에 물고기의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기가 절정에 이를 때에는 톨레삽의 물고기가 약 1억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톨레삽 호수의 물이 다시 메콩강을 거쳐 바대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톨레삽 호수의 좁은 입구로 이 많은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 게다가 물이 빠져나가 다시 육지가 된 부분의 토양은 각종 퇴적물로 인해 매우 비옥해져서 6~7개월

남짓한 건기 동안 3모작이 가능할 정도이다.

12세기에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앙코르와트 왕국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백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것도 이 톨레삽 호수가 가져다주는 풍부한 물고기와 고식 먹분이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무리 지난해도 톨레삽 덕분에 굶지는 않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처럼 소중한 톨레삽이 최근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호수 주민들이 톨레삽의 물고기를 돋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외지인에게 팔아 돈이 될 수 있는 한두 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다 먹지도 못할 수 밖에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내어 그 중 값이 나가지 않는 작은 물고기들을 다시 호수에 버리기 때문이다. 이 죽은 물고기들이 썩어가다가 다음 번 우기 때 호수 전체를 오염시킬 것이다. 수천 억 아니 수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톨레삽 호수를 망친 대가로 주민들이 받는 돈은 큰 물고기 1kg 당 우리 돈으로 천원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늘이 복을 내리신다 한들 이를 제대로 누리려면 수혜자 스스로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톨레삽 주민들이 그 호수의 가치를 진정 인식하고 있었다면 10달러 짜리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겠다고 수 천마리의 물고기를 폐사시켰겠는가?

광주에 근무하게 되면서부터야 절실히 느끼게 되었지만, 우리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을 통하여 가장 복 받은 땅이 아닌가 싶다. 비옥한 농토와 각종 해산물이 넘치는 바다를 함께 끼고 있어 고대시절부터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으며, 이 풍요에 힘입어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수많은 다양한 문화유산과 유적지도 전승되어 왔다. 게다가 전국 각별의 3분의 2 이상이 물려 있는 서남해안을 비롯하여 무등산, 지리산, 월출산 등과 같은 자연 환경도 어느 다른 지방 못지않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청정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를 감사하려는 마음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시장가격이 높지 않다고 해서 미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십 수년 전만 해도 물을 사먹는 것을 상상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는 환경 자원이 차가 높아지다 못해 환경자원의 무기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보고 자신을 돌아켜 깨달음을 얻듯이, 톨레삽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 소중한 환경 자원을 얼마나 훼손해 왔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금융감독원 광주지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안병현

진료실에서 받는 질문 가운데 답하기 곤란한 것 중 하나가 한약에 관한 것이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과 함께 한약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대부분인데 솔직히 정확히 안내하기는 곤란하다. 먹고 있는 한약의 성분도 모를 뿐 아니라 설사 애도 해도 약양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고된 것도, 밝혀진 것도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 이외에는 특별히 교육받은 바가 없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 주권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에게는 양·한방을

데 아무도 책임 있는 안내를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의료법도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사실상 교류가 불가능하니 요즘 유행하는 소위 양·한방 협진도 형식만 합쳐진 진법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양·한방이 하나로 통합돼 환자가 고민하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의과·한의과로 분리된 특수한 의과대학 교육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의료발전과 환자 권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양·한방 중에 어떤 치료를 할까?

통틀어 최선의 진료를 안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환자는 가장 좋은 치료법을 원하지만, 동일한 진단명에 전혀 다른 치료법,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서로 다른 치료법에 대해 비교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현실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닐까? 최소한의 치료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도 더놓고 논의하거나 비판하는 걸 보지 못한 것을 보면 ‘방관의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버린 것 같다.

양·한방 치료 중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전무하다는 말이다. 의사, 한의사, 의료 행정 담당자 모두 팔짱만 끼고 환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 택하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객관적으로 치료법을 비교·분석해보면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을텐

것 외에도 의료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병원 치료 도중, 혹은 불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은 또 다른 희망을 갖고 한방에서 새로운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중의 비용을 들여 좋은 결과를 얻으려니 말이다. 한동안 돈만 들인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가장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환자들에게 그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다보니 불필요한 치료비용을 지출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도 매년 오르는데 추가치료까지 이중으로 드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통계상 나와 있는 수치보다 훨씬 높으리라 생각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치료 효과를 얻으려면 의사·환자 간의 신뢰와 더불어 배타적 영역다툼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치료방법의 취사선택에 대한 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한방 의료인의 노력과 함께 의료제도의 개선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안병현·백준 이비인후과 원장>

기고



남상창

봄이다. 싱그러운 봄이 왔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인데도, 왜 봄이 오면 마음이 상쾌하고 즐거운 걸까. 해가 뜨고 지고, 은은한 달빛이 온 누리를 비춰주는 것은 똑같은데 말이다. 아마도 그간 우리네 몸을 움츠리게 했던 차가운 겨울을 건강하고 즐겁게 이겨냈다는 만족감에서 오는 뿌듯함이라 생각된다. 봄은 그렇게 우리에게 뿌듯함과 상쾌함 그리고 푸르름을 준다. 그런 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울인의 활짝 광 흥매화 향기는 골목길 스치는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 넣어질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도의 아름다운 해변에는 노송과 어우러진 기암괴석이 넘쳐나지 않는다. 또 2천여개의 야기자기한 섬이 용기종이 모여 있지 않는가. 한 발짝 크게 뛰어 도랑을 건너고 나면 숲에 가려진 비경이 눈길을 떼지 못하게 하고, 기우뚱거리 작은 흙노루 저어 갓바위 굽이 접어들면 유수소리가 귀 기울이게 하지 않는다. 그런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닷가의 비경을 어찌 구경도 하지 않고 계절변화의 텁으로만 둘러버려야 하겠는가.

봄꽃 만발한 南道로 여행을

고, 차가운 겨울을 잊기엔 아쉬움을 간직한 듯한 백매화는 흰 눈 서려 여정을 북돋운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일부 시군에서는 범꽃 축제장 단장과 순남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1년 중 가장 한가하고 할 수 있는 요즈음은 잠시 품을 내 매화꽃 향기에 취해보고, 울긋불긋 한 땅물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도 가져보란다.

완연한 봄에 접어든 4월에는 목포시가 노란 개나리꽃 축제를 하고, 국내 최대규모의 탑스런 틀립 꽃 재배단지가 된 신안군 임자도에서는 노랗고 빨간 틀립 꽃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모두가 우리 고장을 찾는 순남맞이 준비에 지친 육신의 뻐근함도 모를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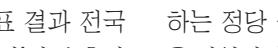
그렇다. 남도는 범꽃이, 봄 향기와 만연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며칠간,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고향을 방문한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산전으로 발길을 돌려 보라고 권해본다. 그리하노라면 고달픈

특히 삼면이 물과 접해있는 남도는 파도소리가 은은하게 귀를 스치는 정감 넘친 곳이 아닌가. 산들산들 불바람이 불어도 조류의 흐름이 거세지 않아 파도는 연일 잔잔하고, 두동실 떠가는 나룻배는 노젓는 사공마저 스르르 눈을 감게 하는 계절이 아닌가. 이토록 잔잔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루의 여가를 즐기다보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계절은 삶을 스쳐가는 나그네다. ‘가여워라’하며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내년에 다시 필수 있는 범꽃이지만 금년에 편 꽃의 아름다움이 내년에도 똑같은 아름다움을 심어주시는 않을 것이다. 화려하고 훈훈하고 따스함을 가슴에 새겨주는 전라남도의 봄꽃들이를 구경해보라고 권해본다. 삶의 의욕을 넘치게 하는 그런 남도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찾아가서.

<전남도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無等鼓



4·9 총선이 끝났다. 개표 결과 전국

곳곳에서 술한 화제와 ‘이번’이 솟출했다.

다른

이번에도 예상을 빗나간 이번에 눈길

이 쏠린다. 서울 등에서는 거물급 후보

들이 고배를 마셨는가 하면, 광주·전남

에서는 든든한 정당의 공천자들도 패배

했다.

서울에서는 과거 집권당 대표와 예비

야당 대표가 지난날

‘실정’의 글레를 벗지

못하고 낙마해 정치적

으로 치명상을 입었

다. 현 정권의 ‘실세’

들도 되돌아선 유권자

들 앞에서는 하릴없는

신세가 됐다.

광주·전남 일부 선

거구에서는 더 큰 일

이 일어났다. 지역주

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통합민

주당 일부 후보들이 무소속의 선전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더욱이 그

동안 대부분 지역민들의 정치적 결정권

을 쥐고 있었던 (?) DJ(김대중 전 대통

령)의 아들까지 낙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물들이나 실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공천 후보자들의 낙선 배경은 다양하다. 지난 정권의 압도, 권력 집중을 견제하려는 유권자 심리의 발동,

더 나은 후보 선택 의지 등이 이번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총선 이번의 균형적인 원인도 세상의 밑바탕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민심에서 찾아보는 게 현명할 듯싶다. 지난날의 잘못을 뒤집어쓰고

낙선한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가졌다

다고 오만방자하거나

무리수를 두면 민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평

범한 진리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정

당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다 해도 이제는

‘인물’을 고르겠다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유권자의 수준을 양

봐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었다.

그러나 이번의 주인공으로 간단신고

(搬難辛苦) 끝에 당선된 이들로 환호작

(歡呼雀躍) 할 일은 아니다. 그토록 무

서운 민심의 ‘작동’ 대상이 당선된 순간

바로 그들에게 옮겨졌기 때문이다.

/박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태안 이중피해 기름유출 사고 명칭 바꾸자

얼마 전 주말에 형과 친구들 7명이 서해 안 학암포라는 곳으로 자원봉사를 갔다. 예전에 군대생활을 했던 곳이라 낯설지 않았고 그 때 봤던 맑은 바다가 기름벌이 된 것이다.

</